

입력 : 2009.06.05 02:47



## 한진중(重) 김정훈 부회장 수빅크에 조선소 설립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올라

**김정훈 한진중공업** 부회장은 조선업계의 '부회장 전성시대'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 중 한명이다. 각 그룹에서 차지하는 조선업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**현대중공업(민계식)**, **삼성중공업(김징완)**, **STX조선해양(이인성)** 등 주요 조선사 모두 부회장이 지휘하고 있다. 김 부회장은 요즘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.

"어려운 시기죠. 그렇다고 해서 '올해·내년만 잘 넘기면 된다'는 짧은 생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5년, 1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."

한진중공업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조선 부문이 세계 경기 침체로 신규 선박 발주가 뚝 끊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한가한 얘기가 아니냐고 물었다. 그는 "국내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조선소이면서도, 규모는 업계의 '말형'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았던 게 사실"이라며 "예전과 같은 생각과 위기 대처 방식으로는 2015년까지 세계 5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"고 했다. 그는 "세계 조선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"라고 말했다.

김 부회장은 한진중공업이 한진그룹에서 계열 분리되기 전인 1972년 **대한항공**에 입사했으며 2000년 한진중공업

▲ 김정훈 한진중공업 부회장이 서울 삼성동 사무소에서 자신이 애독하는 번트 슈미트 미 컬럼비아대 교수의 저서인 '빅 싱크 전략(Big Think Strategy)'을 들고 있다./전기병 기자 gibong@chosun.com

관리총괄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. 그는 2002년 조선 부문 사장을 맡았으며 2004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.

그는 '빅 싱크(Big Think)'의 중요성을 강조한다. '빅 싱크'는 버트 슈미트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내놓은 개념으로, 김 부회장은 이를 '기존의 틀에 박힌 관행적인 생각을 깨뜨리고, 보다 창조적이고 대담한 아이디어를 갖추자'는 뜻이라고 해석했다. 슈미트 교수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강연회도 열었다.

김 부회장은 한진중공업의 대표적인 '빅 싱크' 사례로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꼽았다. 한진중공업은 1937년 부산 영도에 국내 최초의 현대식 조선사로 설립됐다. 기술력은 있었지만 26만여㎡ 규모의 조선소 부지는 큰 배를 만들기에 좁았다.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20위권 밖에 머물렀다.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합치면서 수주잔량(남은 일감)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.

그는 "2007년 12월 수빅에 1차로 세운 독(dock·배를 만드는 일종의 큰 웅덩이)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을 완성했다"며 "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뛰어 들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"고 말했다. 한진중공업이 이번에 완공한 독은 길이 550m, 폭 135m, 깊이 13.5m 규모로 중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. 2006년 한진중공업이 수빅 진출을 결정했을 때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. '비가 많이 오는 곳에는 조선소를 지을 수 없다', '연관 산업이 없는 곳에 조선소를 짓다니'.... 우려와 달리 수빅 조선소는 한진중공업이 펼치는 글로벌 전략의 전초 기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.

"두달 전 해양플랜트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. 하반기에 [브라질](#) 국영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와 에너지 회사 로열더치셸 등이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발주할 예정인데, 여기에도 당당히 도전할 생각입니다."